

| 가이드북 |



| Akkeshi-Kiritappu-Konbumori
Quasi-National Park |

厚岸霧多布昆布森国定公園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습지와 절벽이 이야기하는 대지와 바다의 조화
~생명이 넘치는 습원과 바다~

Interaction between the Earth and the Sea on Wetlands and Cliffs.
-Life-Filled Wetlands and the Sea-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Akkeshi-Kiritappu-Konbu mori Quasi-National Park



북태평양 시사이드라인

-꽃과 꽃의 안개 가도-

북태평양 시사이드라인은 도카치 관내 히로오초에서 네무로시의 노삿푸꽃까지 전체 길이 약 320km에 이르는 해안선의 총칭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 국정공원 구역의 구시로초, 앗케시초, 하마나카초 등 3 마을에 걸친 해안 도로는 웅대한 습원 경관과 연안의 암초·기암을 조망할 수 있는 자연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핫카이드 동부 굴지의 관광 드라이브 루트로서 '꽃과 꽃의 안개 가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곤부모리 해안 지구(구시로초)

국정공원 이용 규칙 및 매너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 주십시오	동물이나 동물의 알, 식물은 채취하지 마십시오	야생동물, 들새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걸으면서 담배는 피지 말아 주십시오	캠핑과 모닥불은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하지 마십시오
	산책길과 나뭇길을 벗어나 걷지 마십시오	지역 주민과 환경 등 주변을 배려해 주십시오	낙서는 '기물파손' 이라는 범칙입니다.	큰공의 출몰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조사슴이 뛰어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2021년 3월 30일에 지정된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은 홋카이도 동부의 태평양측에 위치한다. 일본 국내 58번째, 홋카이도에서는 6번째의 국정공원으로, 홋카이도에서 새롭게 국정공원이 지정된 것은 1990년에 지정된 쇼칸베쓰 테우리아기시리 국정공원 이래, 약 30년만이다. 구시로초, 앗케시초, 하마나카초, 시베차초 등 4개 마을에 걸친 공원의 총면적은 41,487ha(그 중 육지 32,566ha)로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28,788ha)의 약 1.4배에 달하는 광대한 공원이다. 해안선 후퇴와 모래 퇴적으로 형성된 ‘기리타푸 습원’, 강안에서 물을 계속 머금어 형성된 ‘베칸베우시 습원’ 등 형성 과정이 각기 다른 2개의 습원이 거의 원시적인 상태로 남아있으며 또한 바다가 후퇴한 후에도 물을 머금어 남는 ‘앗케시호’, ‘히치타푸토호’ 등 해적호를 비롯하여 곤부모리에서 시레파꽃, 아이카투꽃에서 비와세에 이르는 해안선의 해식절벽, 나아가 ‘다이코쿠섬’, ‘젠봇키섬’ 등 변화가 풍부한 경관이 펼쳐진다.

Contents

- 2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지도
- 4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개요
- 6 대지가 말하는 습원과 절벽의 이야기
- 8 습원과 절벽을 감싸는 자연의 불가사의
- 10 습지와 절벽이 키운 나무와 화초
- 14 습원과 절벽에 서식하는 동물들
- 18 숲에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자연을 지키며 생명을 키운다
- 20 자연을 살리고 자연에 의해 육성된 풍토
- 22 카누 투어링 코스
- 24 광활한 자연에 둘러싸인 캠핑장
- 25 국정공원 외의 캠핑장
- 26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안팎을 둘러보는 추천 주요 루트
- 28 자연이 만들어내는 돌도 없는 소중한 보물
- 29 보물을 지키고 키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 30 철도로 둘러보는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Photo caption

- 1. 원생화원 아야메가하라 / 앗케시초
- 2. 다이코이와 바위, 도도이와 바위 / 구시로초
- 3. 봄의 예조사슴 / 구시로초
- 4. 앗케시 신사 / 앗케시초
- 5. 기리타푸꽃(도후쓰꽃) / 하마나카초
- 6. 베칸베우시 습원 / 앗케시초
- 7. 베칸베우시습원 / 앗케시초
- 8. 비와세 나뭇길 / 하마나카초
- 9. 기리타푸 습원 / 하마나카초
- 10. 호카케 바위 / 구시로초
- 11. 곤부모리 / 구시로초
- 12. 베칸베우시 습원 / 앗케시초
- 13. 기리타푸꽃(도후쓰꽃) / 하마나카초
- 14. 니시베쓰산 / 시베차초
- 15. 기리타푸 습원 / 하마나카초
- 16. 비와세강 / 하마나카초
- 17. 활동하는 큰고니 / 앗케시초
- 18. 도쿄토가리네즈미(앗취류 아종) / 하마나카초
- 19. 겨울의 예조사슴 / 하마나카초
- 20. 도후쓰꽃 등대에서 바라본 절벽 / 하마나카초
- 21. 하마나카 고지마섬 / 하마나카초

대지가 말하는 습원과 절벽의 이야기

일찍이 호수와 늪이었던 습원, 그곳에 흐르는 여러 줄기의 강, 그 상류에 펼쳐지는 울창한 숲. 해안을 따라 이어진 절벽과 태평양에 떠 있는 섬들. 이러한 자연 풍경은 어떻게 탄생하였을까?



1



2

3

4

1. 벵칸베우시 습원(앗케시초) 2. 키토시에서 바라본 기암(구시로초) 3. 하마나카 고지마(하마나카초) 4. 기리타푸 습원과 비와세강(하마나카초)

찬베스 지구에 위치한 낙엽송 숲이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시베차초에서 자동차로 출발한다. 391번 국도를 남하하여 도도(道道) 142호를 타고 네무로 방면으로, 일명 '북태평양 시사이드라인'이라 불리는 해안선을 따라 곧부리 어항을 지나 오르막을 오른다. 구시로 지방 특유의 키 작은 수림으로 둘러싸인 곳을 지나면 구시로초의 어려운 지명이 적힌 간판이 나온다. '伏古(후시코)'라 쓰인 간판부터 국정공원 해안 지구가 시작된다. 키토시 야영장 방면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울창하게 우거진 국유림이 양옆에 펼쳐진다. 잠시 비포장 숲길을 달리면 갑자기 시야가 트이고 야영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까마득히 아래의 물가나 바위 등 조망이 아름답다. 도도(道道)로 돌아와 세키넛푸 전망광장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며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시레파 곳으로 향한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초원을 700m 정도 걸어가면 발 아래에 암석이 파도에 침식되어 깎여진 해식애가 보인다. 고도차가 50~100m나 되는 곳에서 조심스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신사문이 세워진 호카케 바위에 파도가 부셔진다. 시선을 동쪽으로 돌리면 다이코쿠섬, 앓케시 고지마섬이 태평양에 떠 있다. 구시로초에서 하마나카초까지 단단한 바위층의 암석해안은 만과 후미, 곳이 계속되며 구시로초의 시로이와 바위, 다테이와 바위, 도도이와 바위, 다코이와 바위, 로소쿠 바위, 호카케 바위, 앓케시초의 페오토 바위, 하마나카초의 다치이와 바위,

마도이와 바위 등 육지에서 떨어진 기암이 점재한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해안경관이 이 국정공원의 볼거리 중 하나다. 구시로초 센포시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앓케시만이 펼쳐진다. 앓케시초 오보로에서 국도 44호를 타고 앓케시초 시가지로 향한다. 주홍색 앓케시 대교를 건너는 도중, 앓케시호에 가키지마섬 벤텐신사가 보인다. 앓케시호는 둘레 약 25km의 기수호로, 북쪽에서 벵칸베우시강이 유입되고, 나아가 천연 수로를 통해 앓케시만과 이어지는 강의 상류역에는 저층습원의 중심부에 원시적인 고층습원이 발달한 벵칸베우시 습원이 펼쳐진다. 아이카트푸곶, 원생화원 아야메가하라를 둘러보고, 도도(道道) 123호를 타고 하마나카초에 들어선다. 전설이 남겨진 나미다곶, 모치릿푸토호, 히치릿푸토호를 지나 비와세 전망대에 서서 태평양을 배경으로 기리타푸 습원을 바라보면 담수호와 높이 많이 남겨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동쪽으로 이동하여 비와세 다리에 접어들면 겐벳키섬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구 비와세 초등학교(현재 NPO법인 기리타푸 습원 내셔널 트러스트) 부근에서 오른쪽으로는 하마나카 고지마섬, 아제치노곶이 바라보이는 해안 풍경, 왼쪽으로는 기리타푸 습원이 이어진다. 하마나카초 사카키마치를 지나 도도(道道) 142호로 직진한다. 터널을 지나 구릉을 넘어 공원 동쪽 끝의 포포토늪에 이르렀을 때는 주변 전체가 해무로 뒤덮여 있었다.

태평양으로 이어진 해식애(하마나카초)

구시로 지방의 지질 개요

- 네무로층군(백악기, 고제3기) ■ 우라호층군:시타카라층, 사쿠베쓰층, 덴네루층, 유베쓰층, 벳포층, 하루토리층 (고제3기) ■ 아쓰나이층군 아쓰나이층(신제3기)
- 구시로층군: 도로층, 앓코부층, 히기시쿠시로층(제4기) ■ 이관화산원쇄류 퇴적물(제4기) ■ 오다노시게층(제4기) ■ 곳사로 경석류 퇴적물(제4기)
- 하안단구 퇴적물, 저위·고위 하안단구 퇴적물(제4기) ■ 마슈 화산재층(제4기) ■ 후네후층(제4기) ■ 지층·중간·고층습원 퇴적물(제4기)



*17페이지에 게재된 '앗케시 물새관찰관', '아이카트푸 자연사 박물관', '기리타푸 습원센터', '시베차초 박물관~니타이 토~' 등 역사·민속·산업·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구시로 관내의 시설에 상세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20만분의 1 지질도록 구시로·네무로(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질조사종합센터 <https://www.gsj.jp/Map/JP/geology2-1.html>)를 사용하여 (주)스다 제팬이 지질 계통도로 편집·제작한 것입니다.

고층습원이 형성되기까지



습원과 절벽을 감싸는 자연의 불가사의



홋카이도 동부에서 볼 수 있는 해무로 뒤덮인 습지와 절벽 풍경은 초여름의 풍물시 가운데 하나이다. 구시로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에게는 기억에 각인된 원초적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예지를 뛰어넘는 홋카이도 동부의 자연이 빚어낸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태평양쪽에 위치한 국정공원 해안 지구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해무가 발생한다. 연간 해무 발생 일수는 100일 전후에 달한다. 구시로 지방의 해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근해의 해류와 기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 근해에서는 주로 오야시오 해류, 구로시오 해류, 쓰시마 해류, 리만 해류 등 4개 해류가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해류는 적도 부근에서 북쪽으로 흘러오는 따뜻한 바닷물(난류=구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해류)과 북극권에서 남쪽으로 흘러오는 차가운 바닷물(한류=오야시오 해류와 리만 해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난류인 구로시오 해류와 한류인 오야시오 해류가 해무 발생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여름이 되면 습한 남풍이 불어온다. 이는 일본에 여름을 불러오는 '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고기압에서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대기가 흐르기 때문에 남풍이 분다. 이 남풍은 먼저 난류인 구로시오 해류 상공을 통과할 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된다. 그리고 북위 40도 이북(이와테현 북부 부근)에서 한류인 오야시오 해류 상공을 통과할 때 조금씩 차가워진다. 공기 속에 존재하는 수증기 양은 공기가 따뜻할수록 크고 차가울수록 작기 때문에 추운 날 숨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급격하게 식으면 그 안의 수증기는 갈 곳을 잃고 안개가 된다.

구시로 지방의 안개는 해상에서 발생한 안개가 그대로 남풍을 타고 도달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발생한 안개, 즉 '해무'라 불리고 있다. 해무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는 적고 하루에 몇 차례나 해무가 끼거나 바다로 후퇴하기를 반복한다. 안개 끼는 날이 많은 원리를 알게 되면 해무가 끼거나 걷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 해무 전문가로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한편, 홋카이도 동부의 맑고 공기가 차가운 겨울은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일조량이 많아진다. 차가운 바람이 없는 날의 아침에는 바다 표면에 '연잎' 모양의 얼음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해수온이 -1.8℃ 정도가 되면 수면에 수mm 정도의 작은 바늘 모양의 얼음 결정이 많이 부유하게 되는데, 이들이 서로 모여 층을 이루고 성장하여 직경 30cm에서 때로는 3m 정도, 두께 10cm 정도의 '팬케이크 얼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태평양으로부터 강풍이 몰아쳐 파도를 맞은 절벽은 마치 폭포가 바위 표면에 얼어붙은 듯이 고드름이 매달린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내륙이 방사냉각으로 얼어붙어 기온이 영하 20℃ 이하로 떨어지면 찬 공기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간다. 해수온과의 온도차가 12~15℃ 이상이 되면 '서리안개'가 발생한다.



1. 해무 2. 팬케이크 얼음 3. 얼어붙은 절벽 4. 서리안개

여기서 잠깐 미니지식 특이한 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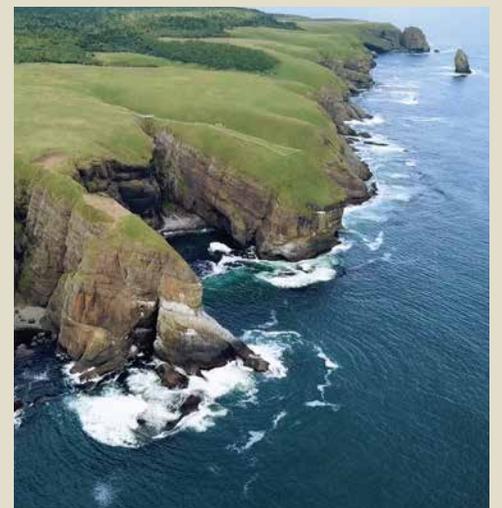
국정공원을 보유한 구시로초, 앓케시초, 하마나카초, 시베차초의 지명에 관한 퀴즈입니다. 홋카이도 주민들도 고개를 가우뚱하는 난독 레벨을 3가지 준비했습니다.

Lv.1	읽을 수 있나요?	Lv.2	읽을 수 있으면 대박!	Lv.3	진짜? 읽을 수 있으면 천재!
1.跡 永 賀()	1.浦 雲 泊()	1.重 蘭 窮()			
2.茶 安 別()	2.五 十 石()	2.片 無 去()			
3.末 広()	3.愛 冠()	3.別 寒 辺 牛()			
4.奔 幌 戸()	4.火 散 布()	4.嶮 暮 帰()			

※답변은 3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나미다꽃·다치이와 바위와 관련된 이야기

옛날 청어잡이가 번영을 누렸던 무렵, 앓케시의 젊은 청년과 기리타푸의 그물잡이 딸의 슬픈 러브 스토리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배를 몰아 앓케시에서 기리타푸로 향하는 도중 이곳에서 좌초하여 젊은 청년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처녀는 절벽에서 서서 흐느끼며 젊은 청년의 이름을 목놓아 외쳤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곳을 방문하면 절벽에서 슬픈 처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치이와 바위는 절벽에서 젊은 청년을 기다리는 처녀의 슬픈 외침을 향해 젊은 청년이 한 걸음 한 걸음 기슭으로 다가오려는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는 처녀의 슬픈 울음 소리와 젊은 청년의 애타게 외치는 소리가 바람과 함께 들려온다고 합니다.



습지와 절벽이 키운 나무와 화초



야치보즈(사초속)

연중 기온이 낮은 구시로 지방은 국내에서 기후가 가장 서늘하다. 혼슈 지방에서는 산지에서나 볼 수 있는 고산식물을 해안 초원이나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점도 큰 특징 중 하나다.

오보로강, 벵칸베우시강 등이 흐르는 벵칸베우시 습원. 대부분은 갈대, 사초, 오리나무가 펼쳐지는 저층습원이지만 1989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원시 상태로 백산차, 대암물끼기 군락 등이 분포하는 고층습원이 발견되었다. 그 주변의 저층습원에서는 잠자리난초, 구시로하나시노부(꽃고비속) 등 귀중한 식물도 볼 수 있다. 벵칸베우시강이 흘러드는 앓케시초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염생식물 '퉁퉁마디'의 발견지로서 그 이름이 유명해졌다. 북서쪽에 있는 오베쓰강 유역에는 일본에서 유일하다고 여겨지는 쇠뜨기말풀의 생육이 확인되고 있다.

여러 개의 사구로 구획되어 해안에 형성된 기리타푸 습원에서는 주요 부분과 서쪽에 있는 히치릿푸토호, 모치릿푸토호를 합친 2,504ha가 랍사르 협약 등록 습지이다. 또한 중앙부는 '기리타푸 이탄 형성 식물군락'으로 국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다. 갈대, 사초, 오리나무 사이에 야치보즈(사초속)가 늘어선 저층습원과 봄부터 가을까지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 '꽃의 습원'이라 불리는 중간습원, 물끼기 군락 위에 넉출월굴, 시로미 등 고산식물

이 밀생하며 에조칸조(원추리속), 황새풀 등도 생육하는 고층습원, 갯봄맞이 등 염생식물이 생육하는 하구부의 염생지 등 기리타푸 습원은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준다. 기리타푸 습원센터 기슭에 있는 '야치보즈 나뭇길', 기리타푸 습원 속을 곧게 가르는 '비와세 나뭇길', 해안선을 따라 계속되는 '나카노하마 나뭇길', 비와세 강변에 위치한 '오쿠비와세 나뭇길'을 실제로 걸으면 백문이 불여일견인 체험이 기다리고 있다. 해안 지구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변형된 키 작은 수목이 우거진 삼림이 점재하며, 구시로초 곤부모리에서 시레파꽃까지 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물참나무, 에조미야 조릿대 등이 분포한다. 앓케시초의 원생화원 아야메가하라는 부채붓꽃을 중심으로 히메이치계(아네모네속), 각시원추리 등의 꽃들이 아름다운 색채를 수놓는다. 하마나카초의 포로토늪 주위에는 갈대가 펼쳐진 저층습원이 분포되어 있지만, 호숫가에서 떨어진 곳에는 물끼기를 비롯하여 넉출월굴, 백산차 등 고층습원의 요소를 포함한 식생을 볼 수 있다.

야치보즈

습지 주변이나 계곡길을 걷다 보면 마치 향아리를 뒤집어 놓은 듯한 30~40cm 높이의 풀 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포기사초 등 사초류의 그루터기가 지표 위로 올라와 매년 같은 장소에서 오래된 그루터기 위에 무성하게 자라난 것으로 '야치보즈'라 불린다. 한자로 쓰면 '谷地坊主', '野地坊主'로 마치 스님 머리처럼 보이는 그루터기가 곡지(谷地)라 불리는 습원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고 추정된다.

야치보즈가 되기까지



겨울 기간에 토양이 동결하면서 지면이 상승하는데 이때 그루터기도 함께 올라간다.

봄이 되면 오래된 그루터기 위에 새로운 그루터기가 무성해진다. 뿌리는 눈석임로 패인다. 매년 이 작용이 반복되면서 '야치보즈'가 성장한다. 단단해진 야치보즈 그루터기 속은 개미와 거미의 보금자리로 이용되며 때로는 도롱뇽이 월동을 위해 들어가기도 한다.

숲과 나무 탐방

1~3은 '국유림', 2는 '사유지', 4~7은 '도유림'입니다. 나무들을 보러가실 때는 규칙과 매너를 지켜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Web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국유림에 입장



홋카이도 삼림관리국

도유림에 입장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삼림실

선포지 절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지켜 본다. 4개의 마을에 지금도 묵묵히 서 있는 나무들을 탐방한다.

곤부모리 시레파 자연휴양림(구시로초)

침엽수와 활엽수가 한데 어우러진 풍요로운 자연환경. 삼림 풍경이 뛰어나고 하이킹과 캠핑 등 자연 속에서 휴양하기 좋은 숨겨진 명소이다.



1

선포젠지 절의 소류 삼나무(구시로초)

1908년경에 아오모리현에서 가져온 삼나무 묘목을 주지가 키우고 '소류 삼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 1974년 4월에 홋카이도의 보호수목으로 지정되었다.



2

파일럿 포레스트(시베차초, 앓케시초)

벵칸베우시강 중류에 위치한 국유림 약 20,000ha 가운데 계획적으로 조성된 10,778ha의 구역. 1956년부터 조성이 시작되어 10년을 들여 낙엽송을 중심으로 약 7,800ha의 산림을 조성. 반세기를 경과하여 조림지는 목재 자원의 공급처이자 앓케시만으로 이어지는 벵칸베우시 습원의 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4

피나무 거목(앓케시초)

앓케시초 벵칸베우시 지구의 도유림에 우뚝 솟은 수령 약 200년 이상, 홋카이도 외 수종 16종, 외국 수종 13종, 약 800그루의 수목이 걸터앉아 있다.



5

앓케시 수목원(앓케시초)

침엽수와 활엽수가 한데 어우러진 원시림 속에 홋카이도 내 수종 53종, 홋카이도 외 수종 16종, 외국 수종 13종, 약 800그루의 수목이 섞여 있다.



6

이푸쿠노마쓰(하마나카초)

수령 400년 이상의 주목. 예로부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쉼터로서 사랑 받고 있다. 도도(道道) 히치릿푸-자나이 정류장 노선변에 있다.



7

시로에조마쓰 보호림(하마나카초)

가문비나무의 변종(1951년, 다테터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쉼터로서 사랑 받고 있다. 도도(道道) 히치릿푸-자나이 정류장 노선변에 있다. 다.

꽃 달력

봄의 눈석임과 함께 화초가 싹트면서 구시로 지방에 꽃의 계절이 찾아온다.
국정공원과 구시로초, 왓케시초, 하마나카초를 잇는 '꽃과 꽃의 안개 가도'에서는
양증맞은 들꽃이 잇따라 절정을 맞는다.

※개화 시기는 그 해의 기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17 페이지에 게재된 시설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식물의 이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가지복수초	*	*				
물파초	*	*				
중의무릇		*				
천마괘이눈		*				
현호색	*	*	*			
산벚나무		*				
큰앵초		*	*			
동이나물		*	*			
실앵초		*	*			
연영초		*	*			
조름나물			*			
박새			*	*		
백산차			*	*		
검은백합			*	*		
구시로하나시노부(꽃고비속)			*	*		
북미나리아재비		*	*	*		
손바닥나비난초			*	*		
갯활랑나물			*	*		
해당화			*	*	*	
곰취			*	*	*	
솔나물			*	*	*	
황새풀(화피갈래조각)			*	*		
평의다리			*	*		
가래바람꽃			*	*		
각시원추리(에조칸조)			*	*		
버들가지수염			*	*		
갯봄맞이			*	*		
부채붓꽃			*	*	*	
눈개승마			*	*	*	
올릉산마늘				*		
에조노시모쓰케소(터리풀속)				*		
수페르부스패랭이꽃				*	*	
연모독활				*	*	
꽃창포				*	*	
에조후로(쥐손이풀속)				*	*	*
날개하늘나리			*	*	*	
가는오이풀				*	*	*
잔대				*	*	*
꼬리조팝나무				*	*	
숫잔대				*	*	
나무수국				*	*	
다치기보시(비비추속)				*	*	
과남풀				*	*	*
가라후토부시(투구꽃속)				*	*	*
좁쌀의다리				*	*	*
털부처꽃				*	*	*
왜골무꽃				*	*	*
통통마디의 단풍				*	*	*



1. 부채붓꽃 2. 왜개연꽃 3. 년줄월굴 4. 수페르부스패랭이꽃 5. 솔나물 6. 왜골무꽃 7. 곰취 8. 황새풀 9. 통통마디 10. 갯봄맞이 11. 백산차
12. 에조후로(쥐손이풀속) 13. 꼬리조팝나무 14. 구시로하나시노부(꽃고비속)

유사한 꽃 구분하는 법

하루만 피며 아침에 핀 꽃은 저녁에 시들어 버린다

각시원추리 (에조칸조)

위를 향해 피는 꽃잎의 안쪽에 주근깨 같은 반점이 있다

날개하늘나리

화피편은 5개로 갈라져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숫잔대

화피편은 6개로 보라색 줄이 있다

다치기보시 (비비추속)

외측 화피편의 기부에 노란색 바탕에 보라색 그늘 무늬가 있다

부채붓꽃

외측 화피편의 기부 중앙에 노란색 얼룩 무늬가 있다

꽃창포

습원과 절벽에 서식하는 동물들

일상생활 속에서 야생동물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앓케시 기리삿푸 곤부모리 국정공원에서는 우연한 순간에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 그럴 때는 놀라움과 감동의 환성은 일단 접어두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달

앓케시초의 아이카츠푸곶은 에조사슴을 만날 확률이 높은 곳 중의 하나이다. 아이카츠푸곶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걷다 보면 아이카츠푸 자연사 박물관 주변의 숲과 아이카츠푸곶의 끝에 있는 '사랑의 종 벨아치' 앞의 초원에서 네 가닥으로 갈라진 뿔을 가진 숲의 신령님같은 수컷 에조사슴과 풀을 와작와작 씹어먹는 암컷과 젊은 수컷 무리와 마주칠 수도 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에조사슴은 크게 경계하지도 않지만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하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감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준다. 홋카이도 동부에서는 북방여우나 에조사슴, 흰꼬리수리 등의 들새가 아주 가까워서 사는 것도 삶의 일부이다.

습원 지구에는 국가 지정특별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서식하며 또한 흑한기에도 전면이 얼어붙지 않는 앓케시호, 히치릿푸토호, 모치릿푸토호는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인 쇠기러기와 큰기러기 등 철새의 일대 도래지로서 큰고니를 비롯한 오리과의 월동지가 된다. 또한 앓케시호 주변과 기리삿푸 습원에는 대형 맹금류인 참수리와 흰꼬리수리가 월동하는 등 베칸베우시 습원을 포함한 그 주변은 국가 지정 '앓케시 베칸베우시 기리삿푸 조수보호구'로 지정되어 많은 물새가 서식하는 국제

적으로 중요한 습지로서 1993년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포유류는 앞에서 언급한 에조사슴, 북방여우, 희귀종으로는 세계 최소의 포유류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만 분포하는 도쿄토가리네즈미(뿔쥐류 아종)가 서식하고 있다. 조류는 까막딱따구리, 황금새 등의 육지새와 물새의 많은 종이 서식하며, 양서류는 에조 도롱뇽, 어류는 이토(연어과), 곤충류는 큰실잠자리 등이 꼽힌다. 해안 지구는 다이코쿠섬이 잔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이며 또한 고시지로우미쓰바메(바다제비과)의 번식지가 되면서 1951년에 섬의 남서부가 '다이코쿠섬 바다새 번식지'로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섬 전체가 국가 지정 '다이코쿠섬 조수 보호구'이다. 잔점박이물범은 시레파곶, 기리삿푸곶 주변에도 서식하지만, 특히 다이코쿠섬은 번식지, 털갈이 시기를 막론하고 개체수가 많고 안정적인 서식처이다.

기리삿푸곶 주변의 바다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해달 번식이 확인되고 있어 개체수 증가가 기대된다. 하마나카초의 고지마섬은 일찍이 국내 희귀 야생동식물종으로 지정된 맹기바다오리의 번식지였기 때문에 하마나카초에서는 재번식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최소의 포유류! 도쿄토가리네즈미

도쿄토가리네즈미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분포하는 뿔쥐류의 아종으로, 이름에 '도쿄'와 '네즈미(쥐)'가 붙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쥐가 아닌 두더지의 종류. 몸은 45~49mm로 굉장히 작고 꼬리는 약 30mm, 몸무게는 1인 동전 2년 정도인 약 2g이며, 코는 길게 튀어 나왔다.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면 '1903년 신종으로 발표되었을 당시, 표본 라벨에 'Yezo(에조→홋카이도)'라고 써야 되는 것을 'Yedo(에도→도쿄)'라고 잘못 적었기 때문에'라고 알려져 있다. 1957년에 홋카이도에서 재발견될 때까지 혼슈 지방에 분포하는 수수께끼의 종류로 알려졌다. 환경성의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CHECK POINT

한랭지의 부식층 등 땅 속에서 서식한다. 흑한기에도 동면하지 않는다. 곤충과 지네, 지렁이 거미 등, 땅 속에 있는 작은 동물을 먹는다.



도쿄토가리네즈미(뿔쥐류 아종)

1. 두루미
2. 까막딱따구리
3. 에조올빼미
4. 참수리
5. 흰꼬리수리
6. 잔점박이물범
7. 맹기바다오리
8. 큰고니
9. 에조올빼미의 새끼새
10. 북방하늘다람쥐

에조사슴

미니 지식

뿔이 갈라진 수를 세어 보면 3살까지는 나이를 알 수 있다. 뿔은 초봄에 완전히 떨어지고 1년에 1번 다시 난다.

<p>1살</p> <p>1살 경에 뿔이 나기 시작한다. 갈라지지 않은 뿔!</p>	<p>2살 또는 2살</p> <p>1살래 또는 2살래의 뿔이 난다.</p>	<p>3살래 또는 3살</p> <p>2살래 또는 3살래의 뿔이 난다.</p>	<p>4살래</p> <p>3살래 또는 4살래의 멋진 뿔이 된다.</p>
---	---	--	---

암컷은 나이 분간이 애매!?

에조사슴 암컷은 뿔이 나지 않아 걸보기로는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다.

야생동물의 육아·자람

미니 지식

야생동물과 사람이 상생하는 홋카이도 동부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태를 이해하는 것도 상생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북방여우

3월~4월에 지면의 굴에서 출산. 육아는 4월~8월 정도까지 계속되고 9월~10월이 되면 새끼 여우는 부모 여우와 헤어져 태어난 장소를 떠난다.



에조사슴

5월~7월 출산. 어미와 새끼가 쌍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수컷 마리의 무리를 짓기도 한다. 수컷은 단독생활이 많지만 젊은 수컷은 무리를 짓기도 한다.



큰곰

동면 중인 1월 하순~2월 상순에 출산. 육아는 암컷이 한다. 새끼곰은 1살 반~2살 반의 여름 무렵에 자란다. 이 시기에 젊은 수컷이 시가지를 해매는 경우가 있다.



해달

연중 출산하지만, 5~6월이 많다. 육아는 암컷이 한다. 어미는 잠수, 털갈이, 먹을 수 있는 먹이, 동 등의 도구 사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때가 되면 새끼 곁을 떠나 독립시킨다.

새 달력

2개의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앓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 공원은 희귀한 야생조류가 많이 서식하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야생조류 관찰지이다. 사시사철 그 소리를 듣고 모습을 볼 수 있는 대자연의 보고다.

*야생동물이므로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7 페이지에 게재된 시설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새의 이름	계절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흰꼬리수리	깃새	●	●	●	●	●	●	●	●	●	●	●	●
두루미	깃새	●	●	●	●	●	●	●	●	●	●	●	●
들꿩	깃새	●	●	●	●	●	●	●	●	●	●	●	●
쇠박새	깃새	●	●	●	●	●	●	●	●	●	●	●	●
어치	깃새	●	●	●	●	●	●	●	●	●	●	●	●
청딱따구리	깃새	●	●	●	●	●	●	●	●	●	●	●	●
오목눈이	깃새	●	●	●	●	●	●	●	●	●	●	●	●
나무발발이	깃새	●	●	●	●	●	●	●	●	●	●	●	●
진박새	깃새	●	●	●	●	●	●	●	●	●	●	●	●
말뚝가리	깃새	●	●	●	●	●	●	●	●	●	●	●	●
붉은가슴올새	여름새		●	●	●	●	●						
섬휘파람새	여름새		●	●	●	●	●						
붉은허리개개비	여름새		●	●	●	●	●						
긴꼬리홍양친이	여름새	●	●	●	●	●	●	●					
사할린되솔새	여름새		●	●	●	●							
굴뚝새	여름새	●	●	●	●	●							
쇠유리새	여름새	●	●	●	●	●							
검은딱새	여름새	●	●	●	●	●							
병어리빠꾸기	여름새		●	●	●	●							
큰까도요	여름새	●	●	●	●	●	●						
알락꼬리쥐발귀	여름새			●	●	●	●						
쥐발귀	여름새			●	●	●	●						
진홍가슴	여름새		●	●	●	●	●						
유리딱새	여름새	●	●	●	●	●							
검은머리속새	여름새	●	●	●	●	●	●	●					
고시지로우미쓰바메(바다제비)	여름새	●	●	●	●	●	●	●	●				
방울새	여름새	●	●	●	●	●	●	●	●	●			
종다리	여름새	●	●	●	●	●	●						
상모솔새	겨울새								●	●	●	●	●
개똥지빠귀	겨울새								●	●	●	●	●
홍머리오리	겨울새								●	●	●	●	●
흰뺨오리	겨울새								●	●	●	●	●
흰죽지	겨울새								●	●	●	●	●
넓적부리	겨울새	●						●	●	●	●	●	●
바다평	겨울새							●	●	●	●	●	●
바다비오리	겨울새							●	●	●	●	●	●
비오리	겨울새							●	●	●	●	●	●
물닭	겨울새							●	●	●	●	●	●
검둥오리	겨울새								●	●	●	●	●
갈색양친이	겨울새								●	●	●	●	●
큰고니	겨울새	●							●	●	●	●	●
참수리	겨울새							●	●	●	●	●	●
흰눈썹바다오리	겨울새/깃새	●	●	●	●	●			●	●	●	●	●

유사한 들새 구분하는 법

구시로 지방을 방문하면 해안, 습지, 초원, 산림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기에 그려진 들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가이드북에 소개된 것은 극히 일부지만, 들새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알면 재미있는 야생동물의 미니 지식을 소개합니다.



앓케시 들새관찰관(앓케시초)
1993년에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로 지정된 앓케시호·베칸베우시 습원의 정보센터. 1층에는 전시실이 있고 습지의 영상을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며, 2층은 관찰 코너로 되어 있다.
【문의처】0153-52-5988



아이카푸 자연사 박물관(앓케시초)
홋카이도 대학 앓케시 임해실습소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홋카이도 동부 지역의 해양생물, 육상포유류, 조류, 곤충류, 현화식물, 균류, 광물, 화석 등 표본 약 2,000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문의처】0153-52-2056



기리타푸 습원센터(하마나카초)
기리타푸 습원과 자연 관련 전시, 제철 꽃과 새, 습원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에코 투어도 개최. 관내에서는 하마나카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45종류의 들새 조각을 전시하고 있다.
【문의처】0153-65-2779



시베차초 박물관~니타이 토~(시베차초)
아이누어로 '니타이'는 '술', '토'는 '호수'라는 뜻. 시베차초의 자연과 역사, 아이누 문화 등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시베차초를 중심으로 홋카이도 동부의 곤충상 해명에 관해 연구하는 이치마 가즈오 씨의 곤충 표본도 소개하고 있다.
【문의처】015-487-2332

숲에서 강으로 그리고 바다로 자연을 지키며 생명을 키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홍수의 완화와 수질 정화 등 수원의 함양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도 지역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육성된 생물 다양성이 조래하는 혜택은 많은 생명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숲, 강, 바다의 물의 순환에 의해 창출되는 양질의 수자원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숲 만들기

어업협동조합 여성부가 주최하는 물고기를 늘리는 나무심기 운동과 하천 환경 보호활동 등 각 지역에서 산관학민이 연계하여 물참나무, 들메나무, 쇠물푸레나무, 물오리나무,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산벚나무, 분비나무, 아카에조마스(가문비나무속) 등을 식수하여 침엽수와 활엽수가 한데 어우러진 원시림에 가까운 침활혼효림 만들기를 하고 있다.



청소 활동

베칸베우시 습원, 기리타푸 습원, 앓케시호 내, JR 하나사키선 연선, 곤부모리 연안, 도로호 주변 등에서는 행정, 어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민간기업, NPO법인, 지역의 초중학생, 마을 내외에서 참가한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청소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하구역에 떠내려 온 부표 등을 카누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다.



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입

NPO법인 기리타푸 습원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는 기리타푸 습원의 사유지 약 1,200ha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높은 해안 도로변의 약 200ha와 두루미의 서식지에 있는 사유지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익재단 일본들새사회에서는 베칸베우시 습원 상류부에 위치하지만 법적 지정이 되지 않은 습원을 두루미 보호를 위해 기부를 받아 매입하고 있다.



나뭇길·산책길 유지관리

기리타푸 습원의 보전 활동에서는 NPO법인 기리타푸 습원 내셔널 트러스트가 소유하는 보전지에 정비되어 있는 아치보즈 나뭇길, 나카노하마 나뭇길, 비와세 나뭇길, 오쿠비와세 야조공원 나뭇길의 개수 작업, 산책길 제조 작업, 가지 절단, 개인·단체회원 및 현지 고등학생 등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환경 교육

시베차 고등학교에서는 '구시로 습원 노릇코호' 가와유 온천 연장 운행 시의 전자 내에서 학생이 관광객에게 습원의 역사 등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다. 앓케시초의 초등학교에서는 환경 보전에 대한 각 가정의 활동과 환경에 대한 조사, 자연 소재를 사용한 공작 발표회를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베차초 읍립 시베차 초등학교와 구시로초 읍립 벳포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생에게 습원을 소재로 현장 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기리타푸 습원센터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원제 '기리타푸 어린이 자연클럽'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카누 체험과 무인도 탐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에코 투어리즘

구시로 지방에서는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등 뛰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사업자와 단체가 에코 투어리즘과 체험형 관광을 전개하고 있다. 에코 투어리즘은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의 관광 자원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 배려하면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자연·역사·문화 등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의 한 방식이다. 국정공원을 보유한 4 마을에서는 습원을 흐르는 강과 호수를 활용한 카누 투어, 네이처 투어, 습원 트레킹, 들새 관찰, 무인도 탐험 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숲과 강과 바다는 하나

삼림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나무들이 자라고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소중한 곳이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물에 필수불가결한 '물'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량의 낙엽으로 만들어진 삼림의 부엽토는 비나 눈식임물을 스펀지처럼 모으고 마침내 강물과 지하수로 흘러나와 생물을 기르는 영양분을 강과 바다에 공급한다.



구시로 지방의 국유림, 도유림은 방무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방무보안림이란, 삼림에 의해 공기의 난류를 발생시켜 안개 이동을 저지하거나, 안개 입자를 잡아둔다. 또한 알마다에서 발생하는 '해무'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연을 살리고 자연에 의해 육성된 풍토

습원, 숲, 호수, 강, 해안, 야생 동식물 등의 자연 관광 자원을 활용.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와 대지의 혜택을 받아가며,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선인으로부터 계승된 지역 문화와 경관을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



앗케시초의 굴 양식(앗케시초)

해안에서는 다시마잡이 철이 되면 새벽부터 많은 어선이 일제히 출항한다. 오전 중에는 배에서 흘러넘칠 정도로 다시마를 채취한 어선이 차례로 항구로 돌아와 트럭에 산더미처럼 싣고 다시마를 말리는 '간바'로 향한다. 적갈색으로 빛나는 다시마는 하나씩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말려져 다시마의 독특한 향기가 주위에 풍긴다. 앓케시초에서는 굴, 바지락 캐기가 성행하고 거머리말 터에서 봄의 뱀어를 시작으로 줄무늬도화새우, 겨울은 빨간대구와 지카(빙어속) 등 수산자원의 어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앓케시초의 원생화원 아야메가하라와 하마나카초의 비와세, 도후쓰 지구에서는 훗카이도 재래마(도산고)를 방목함으로써 반자연 초원을 만들었고 시베차초, 앓케시초에 걸쳐 있는 파일럿 포리스트에서는 개척을 위해 불을 사용하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여 야생화된 땅에 1956년부터 식림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낙엽송의 광대한 삼림이 펼쳐져 베칸베우시 습원의 수원림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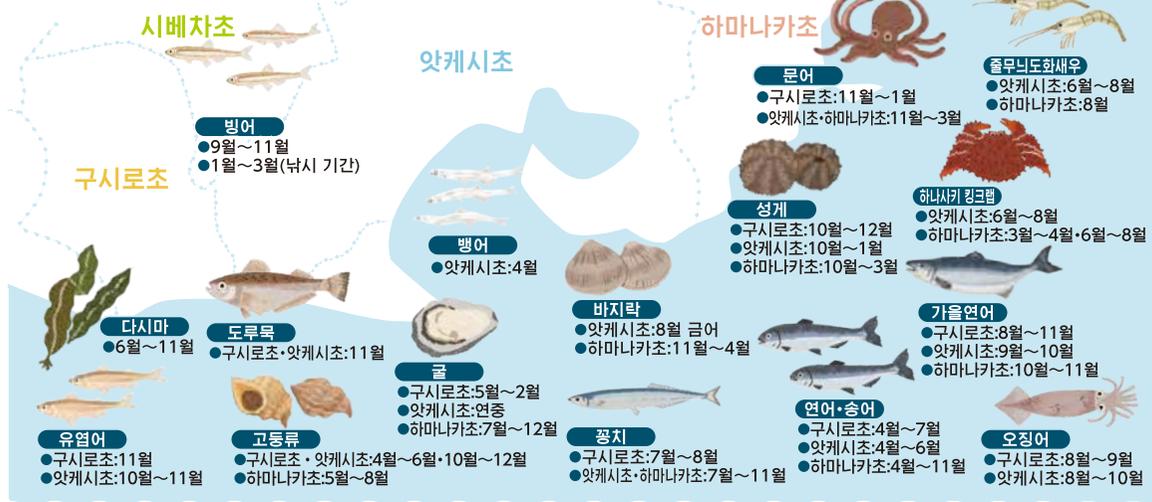


2

3

4

바다의 혜택



5

6

1. 다시마 어업 일제 출항(앗케시초) 2. 히지릿푸토호의 바지락 캐기(하마나카초) 3. 가을연어 정지망 어업(구시로초) 4. 다시마 건조작업(구시로초) 5. 젓소 방목(하마나카초) 6. 원생화원 아야메가하라의 훗카이도 재래마 방목(앗케시초)

대지의 혜택

	젓소의 수	육용우의 수	생유 생산량	마을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구시로초	553두	51두	2,625t	-
앗케시초	13,473두	169두	69,941t	치즈, 우유, 버터, 아이스크림, 소프트아이스크림
하마나카초	23,920두	2,434두	100,269t	쇠고기, 우유, 소프트아이스크림, 치즈, 드링크 요구르트
시베차초	48,450두	17,371두	172,479t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버터, 삶은 쇠고기, 쇠고기조림

2021년 6월 말일 정보

앗케시 올스타의 위스키를 목표로

염분을 함유한 해무, 맑은 공기, 풍부한 이탄(피트), 서늘한 기후, 이탄층을 통과한 차갑고 맑은 물이 흐르는 '호마카이강'을 상수도의 취수구로 삼는 환경이 위스키의 성지 스코틀랜드 아일라섬과 흡사하다고 해서 2016년에 앓케시 증류장에서 위스키 양조가 시작되었다. 아일라섬과 마찬가지로 이탄층을 통과한 물을 양조수로 사용한다. 현재 위스키의 숙성이 진행되고 있다. 앓케시초와 아일라섬은 굴이 특산물이다. 일년 내내 굴을 어획하는 앓케시초에서는 언제든지 신선한 생굴에 앓케시 위스키를 뿌려 맛볼 수 있다. 앓케시 증류소에서는 위스키 양조의 원료가 되는 '물', '보리', '위스키를 숙성시키는 통'까지 '전부 앓케시산'을 사용하는 앓케시 올스타 위스키'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ctivity 카누 투어링 코스

국립공원 안팎에는 '베칸베우시 습원', '기리타푸 습원', '구시로 습원'을 둘러볼 수 있는 카누 투어링 코스가 있다. 카누 이용 시의 규칙과 매너는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현지 가이드 투어에 참가할 것을 권장한다.

카누 이용 시의 매너 규칙



두루미를 보았을 때는 떠들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천천히 항행하도록 합니다. 특히 새끼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해 주십시오.



삼림 지대에는 큰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큰곰의 출몰에 주의해 주십시오.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플래시 등으로 야생동물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는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큰소리를 내거나 손을 흔들지 말고 조용히 관찰해 주십시오.



정해진 카누의 발착 장소를 이용합니다. 또한 카누 포트, 카누 발착장, 휴식 지점 이외의 곳에는 상륙하지 마십시오.



식물을 꺾거나 채취하지 마십시오. 또한 곤충과 양서류, 물고기 등의 동물을 채집하지 마십시오.



야생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입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고 화장실은 미리 가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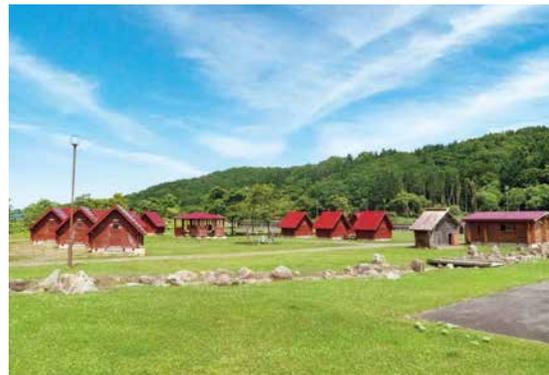
Outdoors 광활한 자연에 둘러싸인 캠핑장

국립공원 내의 캠핑장에서 녹색 자연에 둘러싸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여행의 묘미 중 하나. 더욱이 3곳의 캠핑장 근처에는 식물의 숨결을 느끼면서 삼림욕을 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길과 숲길이 정비되어 있다. 일상을 잠시 잊고 대자연에 둘러싸여 심호흡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다.

구시로초 달빛이 수면에 비치는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키토시 야영장

날씨가 좋은 날에는 태평양이 내려다보이고 주위에는 원생림이 펼쳐지는 와일드한 캠핑장. 고요하고 여유로운 시간의 흐름과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해무에 감싸인 정적, 붉게 물드는 석양, 달빛에 빛나는 바다 수면 등의 풍경에 최고의 기분을 맛볼 수 있다. 간선도로와 야영장을 잇는 700m 정도의 숲길은 비포장도로로 폭이 좁고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므로 조심해 주십시오.

【이용기간】 6월 1일~10월 31일
【설 비】 프리 사이트 (무료), 화장실, 취사장, 수도
【문의처】 0154-62-2193(구시로초 읍사무소 산업경제과)



앗케시초 대지와 녹색 자연으로 둘러싸인 휴식의 땅. 지쿠시코이 캠핑장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에 텐트 사이트와 방갈로가 준비되어 있어 원하는 방식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 세탁실과 온수 샤워장도 있으므로 연속으로 숙박해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앗케시초의 관광명소 중 하나인 아이카트푸곶 근처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시가지도 가깝고 지쿠시코이 도로에 접해 있어 관광 거점으로서의 입지 조건도 좋다.

【이용기간】 7월 1일~9월 30일, 굴 축제 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설 비】 텐트 사이트(유료/프리 사이트), 방갈로 총 12동 (유료/LED 랜턴 무료 대여 가능), 취사장, 화장실 (간이 수세식), 커뮤니티 시설(세탁기, 건조기, 샤워, 회의실), 관리동
【문의처】 0153-52-6627(지쿠시코이 캠핑장)



하마나카초 광대한 바다를 바라보며 상쾌한 기분을 만끽. 기리타푸곶 캠핑장

기리타푸곶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고지대의 완만한 경사면에 방갈로(유료)가 18동 있으며 그 밖에 텐트 사이트(무료), 도그런(무료)도 있다. 또한 휴게소(유료)에서는 단체 바비큐를 즐길 수도 있고 차박과 오토바이 캠핑도 가능하다. 고지대에서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리타푸곶 캠핑장의 매력.

【이용기간】 6월 상순~10월 상순
【설 비】 방갈로 총 18동(전원, 조명설비, 침구 등 없음), 공동 간이수세식 화장실, 공동 취사장, 쓰레기 버리는 곳
【문의처】 0153-62-2111(하마나카초 읍사무소 상공관광과)

※예약 상황과 예약기간, 개설기간, 요금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이용 시에는 매너를 지키며 즐겁게 자연을 즐기십시오.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훼손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합니다.

※화기의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캠핑은 지정된 장소에서 합니다.
 ※큰소리를 내거나,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Outdoors 국립공원 외의 캠핑장

국립공원 밖에도 시베차초, 구시로초, 하마나카초에는 자연을 만끽하며 아웃도어 라이프를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캠핑장이 여러곳 있다.



니지베쓰 오토캠핑장 센터하우스

시베차초



니지베쓰 오토캠핑장

프리 사이트, 코티지, 넓은 텐트 공간이 자랑. 나무가 옆 사이트와의 칸막이가 되어 주는 개별 사이트, 방갈로 등, 다양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도 안심·안전·쾌적한 환경이다.

【이용기간】 5월 1일~10월 31일
【설 비】 프리 사이트(유료), 센터하우스(세탁기, 건조기, 샤워), 코티지3, 개별 사이트 25, 방갈로2, 파티 사이트 1, 파위 사이트 5
【문의처】 015-485-2111(시베차초 읍사무소 관광상공과)

다와다이아 캠핑장

다와다이아 전망대 아래에 위치한 푸른 잔디밭이 아름다운 탁 트인 캠핑장이다. 텐트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아름답다. 접수처인 '그린힐 다와'는 시베차초의 식소재를 사용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고 특산품도 판매하고 있다.

【이용기간】 5월 1일~10월 31일
【설 비】 프리 사이트 (유료), 취사장, 화장실
【문의처】 015-485-2111(시베차초 읍사무소 관광상공과)

도로모토무라 캠핑장

도로호의 호숫가에 접해 있어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캠핑장이다. 카누 체험도 접수하는 휴게시설인 '모토무라 하우스 파루', 파크골프장, 도로코 에코뮤지엄센터 '아루코토', 시베차초 박물관~니타이 토~가 바로 근처에 위치하여 관광 거점으로도 좋은 장소이다.

【이용기간】 5월 1일~10월 31일
【설 비】 프리 사이트 (유료), 취사장, 화장실
【문의처】 015-485-2111(시베차초 읍사무소 관광상공과)

구시로초

닷코부 오토캠핑장

둘레 5km의 작은 닷코부호의 호숫가에 위치한 캠핑장이다. 동식물과 들새 관찰 외에 여름에는 반딧불이 관찰도 가능하다.

【이용기간】 5월 1일~10월 31일
【설 비】 센터하우스(코인샤워, 코인세탁실 등), 취사동, 프리 사이트·오토 사이트(유료), 로지, 방갈로, 화장실 외
【문의처】 0154-40-4448(센터하우스)



하마나카초

MO-TTO 가제테

이용료도 저렴하며 취사장, 수세식 화장실, 샤워장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다목적 광장, 놀이기구 광장 등이 있다.

【이용기간】 5월 상순~10월 하순
【설 비】 프리 사이트(유료), 관리동, 취사장, 공동 간이수세식 화장실, 각종 체험(사전 예약) 등
【문의처】 0153-64-3000(MO-TTO 가제테)



자연이 만들어내는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



하마나카초 **하마나카 고지마섬·고메시마섬·겐뭇키섬**
무인도인 하마나카 고지마섬, 고메시마섬에는 일찍이 하마나카초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한 땡기바다 오리다. 다수 서식하고 있었다. 겐뭇키섬은 둘레 약 4.5km, 면적 0.07km²로 약 3,000년 전에 해저가 융기하면서 파도의 침식에 의해 깎여나가며 형성된 평탄한 무인도이다. 은방울꽃, 예조칸조(원추리속), 과남풀 등의 군락이 지금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만 서식하는 도쿄토가리네즈미(딱지류 아종)가 있다. 초원의 대지는 바닷새 번식에 적합하여 고시지로우미쓰바메(바다제비과)와 바다가마우지, 꿩갈매기 등 바닷새의 귀중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구시로초 **대지와 바다가 자아내는 웅대한 자연**
북쪽으로는 구시로강과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 남쪽으로는 태평양과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이 있어 바다와 대지가 자아내는 웅대한 자연이 마을의 보물이다. 마타이트키에서 센포시까지 마을의 해안선 약 40km는 웅장한 커브를 그리며,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이 지방 특유의 해무는 들꽃이 만발한 초원과 강풍으로 인해 특이한 형태로 변형된 나무들이 가득한 숲을 하얗고 부드럽게 감싸 마치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듯한 환상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호소오카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구시로 습원은 계절과 주야를 막론하고 기분이 후련해지는 광활한 경치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앗케시초 **앗케시 고지마섬·다이코쿠섬**
다이코쿠섬은 둘레 약 6.0km, 면적 1.08km²의 무인도이며, 1951년에 앗케시 등대를 포함한 섬의 남서부 약 12만m²(섬 전체 면적의 약 11%)이 바닷새 번식지로서 국가 천연기념물로, 1964년에는 도립 자연공원으로, 1966년에는 섬 전체가 특별 조수 보호구로 지정되었다. 섬에는 고시지로우미쓰바메(바다제비과), 큰재갈매기, 바다가마우지, 흰눈썹바다오리 등이 서식하는 바닷새의 낙원이다. 잔점박이물범의 몇 안 되는 번식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앗케시 고지마섬은 둘레 0.8km, 면적 0.05km²의 작은 섬이다. 1975년에 초등학교가 폐교된 이래 연중 거주하는 주민은 없어지고 7~9월 다시마잡이 철에만 10명 안팎의 인구가 된다.



시베차초 **2개의 국립공원과 국정공원**
시베차는 동서 58.9km, 남북 60.5km로, 총 면적은 도쿄도의 약 절반 정도의 광활한 면적을 가진 마을이다. 남부는 귀중한 동식물의 보고로 곳타로 습원, 도로호, 시라루토호를 포함한 구시로 습원 국립공원의 습지대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북부는 웅대한 곤센 대지에 낙농을 기간 산업으로 하는 낙농 시대가 끝없이 펼쳐진다. 최북부에는 니시베쓰산을 포함한 아칸마수 국립공원의 일부가 펼쳐져 2개의 국립공원과 앗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을 가진 웅대한 대자연이 시베차초의 둘도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곤센 대지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는 맑은 날의 다와다이라의 일출과 석양, 짙푸르며 빛나는 밤하늘은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보물을 지키고 키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구시로초
마을 넓이는 약 252.66km²이고, 인구는 약 19,000명, 주요 산업은 어업·농업·상업이다. 1920년에 구 구시로초(현 구시로시)에서 분리되었고 그 후 1955년에 곤부모리무라와 합병하여 '신구시로무라'가 되었고, 1980년 정제 시행에 의해 구시로초가 되었다. 벤토, 도야, 세키리부토, 도요·주요, 곤부모리 등 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앗케시초
마을 넓이는 약 739.27km²이고, 인구는 약 9,000명, 주요 산업은 어업과 낙농이다. 앗케시의 이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1604년에 성립한 마쓰마에 번의 문헌에 마쓰마에번이 앗케시 바쇼를 개설하고 운조야를 설치한 1624년~1644년이라는 전래이다. 마을 이름의 어원은 아이누어에 유래하기도 한다.



하마나카초
마을 넓이는 약 423.63km²이고, 인구는 약 5,600명, 주요 산업은 어업과 낙농이다. 이 지역에 야마토인이 발을 내디딘 것은 1627년 이후라고 전해지며 1701년에 앗케시 바쇼를 나누어 마쓰마에번의 키이타푸 바쇼를 개설한 것이 마을의 효시로, 실로 바다로부터 개척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시베차초
마을 넓이는 약 1,099.37km²이고, 인구는 7,300명, 주요 산업은 낙농 축산업이다. '시베차'는 아이누어 '시멧차'라는 발음이 무더진 것으로 '큰 강'이라는 뜻이다. 마을에는 구시로강, 베칸베우시강, 니시베쓰강 등 3줄기의 큰강이 흐르며, 물과 숲은 산업과 개척의 역사에 각인되어 있다.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란, 람사르 협약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등록된 습지를 말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물새의 서식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습지 생태계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베칸베우시 습원(앗케시초/1993년 등록/등록 면적 5,277ha)
앗케시초, 베칸베우시 습원은 연속으로 국가지정 조수보호구로 지정되었으며, 앗케시만 전역을 포함한 특별보호지구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다. 앗케시초는 태평양에 접하는 기수호로, 베칸베우시 습원은 앗케시호로 유입되는 베칸베우시강과 그 지류를 따라 가느다란 줄기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총 면적은 약 8,300ha로 거의 갈대·사초로 된 습원으로 대부분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기수역에서 삼림까지의 다양한 환경에는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지금까지 약 240종이 기록되어 있다. 철새는 큰고니, 비오리 등 오리류가 많고, 종계지 및 월동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흰꼬리수리, 두루미 등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기도 하다.



기리타푸 습원(하마나카초/1993년 등록/등록 면적 2,504ha)
습원의 중앙부는 '기리타푸 이탄 형성 식물군락'으로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기리타푸 습원의 주요 부분과 습원 서쪽에 위치하는 2개의 기수호인 히치리푸토호와 모치리푸토호이며, 국가 지정 조수보호구인 특별보호지구로도 지정되어 있다. 홋카이도 동부의 태평양에 면한 비와세만, 하마나카만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면적 3,168ha의 습원의 일부(2,504ha)이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중앙부(803ha)는 이탄 형성 식물군락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저층습원에서 고층습원까지 종류가 다양한 습원 내에서는 다양한 조류와 예조사슴 등의 대형 포유류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철도로 둘러보는 앓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홋카이도에서 가장 긴 철도노선 'JR 네무로 본선(다카카와-네무로)' 가운데, 구시로시에서 네무로시의 2시 3마을을 이어주는 구간은 'JR 하나사키선'이라 불리며 현지 주민과 철도 애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량 편성의 열차로 둘러보는 여행의 차창에는 순간 순간 그 표정을 바꾸는 절벽과 습원 등, 바다와 대지가 자아내는 독자적인 경관이 펼쳐지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칸베우시 습원을 달리는 열차(JR 하나사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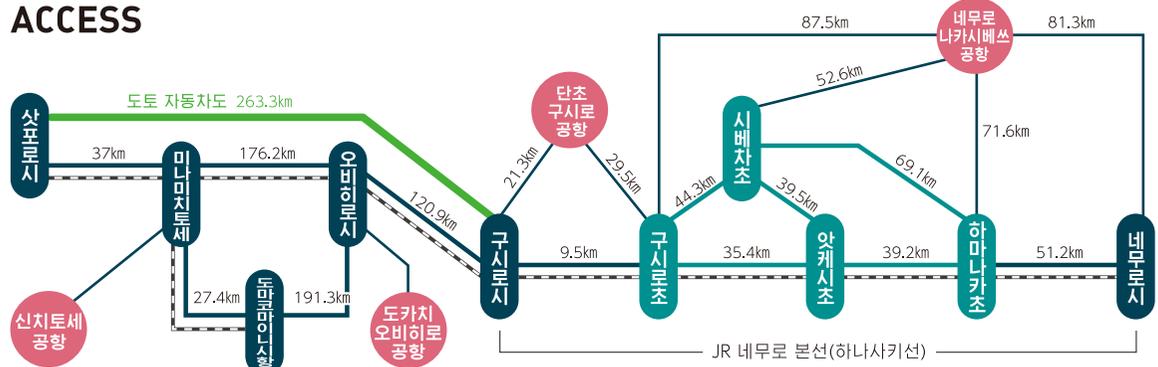
JR 센모 본선

구시로와 아바시리를 이어주는 길이 166.2km의 구시로 지구 선로변에는 구시로 습원과 곶타로 습원, 도로호, 시라루토로호 외에도 마슈호, 곶사로호 등 웅대한 훗카이도 동부 특유의 경관이 펼쳐진다.

JR 하나사키선

구시로와 네무로를 이어주는 길이 135.4km의 JR 하나사키선(JR 네무로 본선)은 람사르 협약 등록 습지 '베칸베우시 습원'과 앓케시호,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에조사슴 등의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ACCESS



앓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은 구시로역에서 앓케시역을 경유하여 네무로역에 이르는 JR네무로 본선(하나사키선)과 도시간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네다 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국정공원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인 '단조 구시로 공항', '네무로 나카시베쓰 공항'을 이어주는 항공편이 각각 운항되고 있습니다.



※교통 표기의 소요 시간은 기준입니다. 각 교통기관의 공식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앓케시 기리타푸 곤부모리 국정공원 가이드북

문의
 구시로초 산업경제과
 구시로초 벳포 1초메 1
 ☎ 0154-62-2193
 ✉ sangyo_syokokanko@town.kushiro.lg.jp



앓케시초 관광상공과
 앓케시초 신에이 3초메 1
 ☎ 0153-52-3131
 ✉ kankousyokou@akkeshi-town.jp



하마나카초 상공관광과
 하마나카초 도후쓰 445
 ☎ 0153-62-2111
 ✉ shokokanko@town.hamanaka.lg.jp



시베차초 관광상공과
 시베차초 가와카미 4초메 2
 ☎ 015-485-2111
 ✉ info@office.town.shibecha.hokkaido.jp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보건환경부 환경생활과
 구시로시 우라미 2초메 2-54
 ☎ 0154-43-9154
 ✉ kushiro.kanky1@pref.hokkaido.lg.jp



취재 협력 임야정 홋카이도 산림관리국 곤센 서부산림관리서
 환경청 구시로 습원 자연보호관 사무소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삼림실
 앓케시 물새관찰관
 시베차초 박물관~니타이 토~
 아이카투 자연사 박물관
 NPO법인 기리타푸 습원 내셔널 트러스트
 아시안 카누
 레이크사이드 도로

사진 협력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삼림실
 구시로초
 앓케시초
 하마나카초
 시베차초
 앓케시 관광협회
 시베차초 관광협회
 NPO법인 기리타푸 습원 내셔널 트러스트
 [p1]아이보초
 [p13]3.년출월굴 / 9.통통마디 / 10.갯벌맞이
 11.백산자 / 14.구시로하사시노부(꽃고비속)
 [p15]7.왕기바다오리
 [p18]동식물 보호를 위한 민유지 매입 / 나뭇길·산책길 유지관리
 다카타 가즈오(구시로초 사진애호회 소속)
 [p4-p5]2.다코이와 바위, 도로이와 바위 / 3.봄의 에조사슴 /
 10.호카케 바위 / 12.베칸베우시 습원
 [p15]2.까막딱따구리 / 3.에조출몰미 / 9.에조출몰미의 새끼새 /
 10.북방하늘다람쥐
 미야자와 가오리
 [p28] 다와다이라 전망대
 [p29] 곶타로 습원

제작·인쇄 주식회사 스타 제판
 8페이지의 담
 [레벨.1] 1.아토에카 2.잔베쓰 3.마비로 4.포포로토
 [레벨.2] 1.폰토마리 2.고깃코쿠 3.아이카투 4.히지키타푸
 [레벨.3] 1.치후루케우시 2.기타우사리 3.베칸베우시 4.겐뵈키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2021년 9월 발행
 본 팸플릿에 게재된 사진 등의 무단 게재는 금지됩니다. 또한 게재된 정보는 취재 시의 것입니다.

앗케시 기리타푸 군부모리 국정공원 가이드북

Akkeshi-Kiritappu-Konbumori Quasi-National Park

발행 / 홋카이도 구시로 종합진흥국 2021년 9월

